

## 윤리회복과 AIDS

김 태 호 · 국회의원, 보건복지분과위원



에이즈(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이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감염된지 7~10년 이내에 약 50%가 에이즈환자가 되고, 환자의 대부분이 2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유엔의 에이즈 퇴치기구인 <유엔 에이즈>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2,00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고, 금년 한 해에만도 1백 12만명이 에이즈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5년 이래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 수는 551명이며, 환자는 40여명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몇 배에 달하는 감염자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고교생 3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등 주 감염 연령층이 청소년층으로 하향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기침, 재채기, 대중탕, 공중변소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으며, 불건강한 성생활, 수혈, 주사기의 공동 사용, 감염된 자의 임신으로 인한 태아전파 등으로 감염되며, 대부분이 불건강한 성생활(약 80%)로 인해 이루어진다.

에이즈는 만성으로 그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이 있으며, 초기에는 쉬 피곤하고, 잦은 식은땀과 발열, 식욕감퇴, 대소변을 참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귀중한 생명을 잃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그러면 인류를 과멸로 이끌지도 모를 에이즈를 어떻게 막고,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된 사람과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포의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개발에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제약회사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HIV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약은 물론 백신개발도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예방 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다. 문란한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주경로인 만큼 올바른 성생활을 계몽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에이즈를 단순 질병차원에서가 아닌 사회문제 차원으로 승화시켜 에이즈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 즉 철저한 교육만이 유일한 에이즈 백신이라는 신념을 갖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한국에이즈연맹 등 각 시민, 사회단체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등 정부차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과 홍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이는 이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들을 돌보는 일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체적, 물리적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의 의료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안게 될 심리적 불안, 고통,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또는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대화와 간호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에이즈 감염자와 관련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법 앞의 평등, 사생활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일반인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요구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위생이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만 최소한의 제한적으로 환자를 격리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오직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격리, 배척되어선 안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물질문명이 가져온 삶의 풍요 속에서 한 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인간은 향락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안전하고 건전하게 된다. 물질이 앞서고 황금이 전횡하는 사회, 한없이 향락을 탐닉하는 병든 환경 속에 인간의 존엄은 날로 실종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런 사회풍토가 에이즈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발생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연구,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 이를 위해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정신문화가 이 땅에 살아 숨쉬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여겨진다. ㉞

## 필자약력

- 경남 울산 출생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제12·13대 국회의원
- 인천시장
- 경기도지사
- 내무부 차관보
-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민정당 사무차장·중앙집행위원
- 내무부장관
- 신한국당 울산시 중구지구당 위원장(현)
- 신한국당 당무위원(현)
- 제15대 국회보건복지위원(현)
- 지방발전연구회 회장(현)
- 「한국-에콰도르」의원친선협회 회장(현)